

다차원적 대처척도에서 본 성격특성과 대처방식과의 관련성

이 전 아* 김 영 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하여 대처방식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조사하고, 성격척도들이 미래의 대처방식들을 예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 결과 대처척도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보였으며, 요인양상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성격자질(낙천주의, 자존감)은 기능적인 대처방식과 연합하고 부정적인 성격자질은 덜 기능적인 대처방식과 연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성격변인이 어느 정도는 대처스타일을 예언해 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임상적 의미와 제한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다차원적 대처척도, 성격변인, 기능적 대처방식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고 그 결과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며 이러한 입장은 성격요인들이 대처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Ben-Porath & Waller, 1992; Lazarus & Folkman,

1984). 성격과 대처방식이 다양한 종류의 부적응의 산출과 유지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관여된다는 입장이 제안되어왔다(Snyder, Harris, Anderson, Holleran, Irving, sigmon, Yoshinobu, Gibb, langelle, & Harney, 1991). 대처와 특정성격변인들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전 아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 FAX: 053-950-5243 / E-mail: jednah@netian.com

격변인이 부적응과 관련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격과 대처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3가지 모델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성격이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동안에 사용하는 특정 대처 방략 또는 스타일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특정 성향적 변인들의 수준과 특정 대처 방략(Endler & Parker, 1990; McCrae & Costa, 1986)간의 연합을 측정하거나 또는 일부 성격기질에서 차이가 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처와 부적응을 측정한다(Pittner, Houston, & Spiridigliozzi, 1983). 이들 연구들은 특정성격 변인이 병리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처 스타일을 산출하는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성격과 대처방식 둘 다 부적응에 독립적으로 기여를 하는 가법적 모델을 가정한다. 이 모델에서는 특정성격 변인과 대처 방략들이 부적응과 독립적으로 관련되고, 그 각각은 증상의 예언과 관련된다는 것이다(Parkes, 1986).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에서는 특정성격변인이 부적응을 산출하고 유지하는데 대처변인과 상호 작용한다는 상호작용적 모형을 가정한다(Wheaton, 1983). 수많은 성격변인들이 이들 모델들을 사용하여 연구되어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모델인 매개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기질의 구성을 주장해 왔지만(Eysenck & Eysenck, 1985), 가장 최근에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5요인 모델(Costa & McCrae, 1985)이다. 5요인 모델(McCrae, 1991)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질들은 5개로 구성된 하위부류로 이해될 수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N), 외향성(E), 개방성(O), 원만성(A), 양심성(C). 이들 요인들은 자기-보고법이나 관찰자 평정법으로 측정될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 꽤 안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McCrae & Costa, 1990).

5요인 모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성격기질은 신경증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신경증이 부적응적 대처와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Endler와 Parker(1990)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정서 중심적 대처의 증가와 관련되며 특히 신경증적 경향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 과제 중심

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드러났다. Epstein과 Meier(1989)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건설적 사고라는 대처변인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Costa와 McCrae(1990)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부적응적 대처 방략을 증가시키고 적응적 방략은 거의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른 연구는 신경증과 대처간의 관련성이 복잡하고 부분적으로는 맥락적 요인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Parkes(1986)는 신경증, 외향성, 환경적 요인, 대처에 대한 연구에서 성격과 대처간의 가법적, 환경적 모형 둘 다를 검증했다. 이 연구에서 Parkes는 신경증이 직접적인 문제중심적 대처와는 덜 관련되고 반면에 외향성은 보다 직접적인 대처방식과 관련됨을 입증했다. 더욱이, Parkes는 신경증과 외향성이 억압의 수준을 예언하는데 상호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처에서 성격변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지지해주는 증거로 보여진다. 유사한 맥락에서 Bolger(1990)는 대처방략들이 신경증과 부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신경증은 비효과적인 대처방식과 관련되고 정서적 불편감 수준의 증가와 연합했다.

McCrae와 Costa(1986)는 신경증과 정서 지향적 대처간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들은 외향성과 개방성에 대한 측정도 했다. 그결과 신경증은 신경적 대처라고 부르는 다양한 정서 중심적 방략과 관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향성은 성숙한 대처방식 뿐만 아니라 대체, 제한, 합리적 사고와 같은 적응적 방략의 사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McCrae와 Costa는 외향성과 같은 성격변인들이 정서적 불편감의 수준을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시기동안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대처와 적응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Scheier, Weintraub, 및 Carver(1986)에 의한 연구는 성향적 낙천주의와 다양한 건강-관련된 결과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낙천주의가 적응적 대처반응과 연합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Fontaine과 Manstead(1993)에 의한 연구에서는 낙천주의와 적극적 대처간에 유의한 연합을 보였고, 낙천주의

와 정서표출간에는 부적 연합을 보였다. Carver 등(1993)에 의한 한 연구는 낙천주의, 대처, 정서적 불편감사이의 연합을 규명하는데 특히 도움을 준다. 이 연구는 59명의 유방암환자에 대한 장기적 연구였다.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점(진단 시, 수술 하루 전, 수술 10일 후, 3달 후, 6달 후, 12달 후)에서 낙천주의, 대처, 정서적 불편감의 수준을 측정했다. 결과는 낙천주의적 경향이 각 시점에서 정서적 불편감과 부적으로 연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천주의와 대처경향성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낙천주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 대처반응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연구자들은 염세주의적 성향, 대처, 부적응간의 연합을 입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Zeider & Ben-Zur, 1993). 이러한 염세주의와 부적응적 대처방식간의 연합은 염세주의적 성향이 대처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제한시킨다는 견해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낙천주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인 대처노력을 하게되고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염세주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편감이나 해방에 더 치우치게 된다. 실제로 이전연구에서 특정스트레스 사상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다(Scheier 등., 1986).

대처경향성의 패턴을 예언할 수도 있는 다른 성격성향들도 있다. 하나는 자존감이고 다른 하나는 A유형 행동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한다(Pearlin & Schooler, 1978).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 불편감에 사로잡혀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도 있다(Fleishman, 1984; Holahan & Moos, 1987; Terry, 1994). 이러한 결과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이 자기에게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에 귀인 할 수 있다(Fleisman, 1984).

A유형 행동 패턴(TABP)은 잘 알려진 하나의 성격특

질로서 대처과정이나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유형 행동 패턴은 경쟁적인 활동추구, 시간엄수, 적대감, 성미급함, 일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특징지어진다(Friedman & Rosenman, 1959). Glass(1977)는 이러한 패턴을 환경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반영한다고 특징지었다. A유형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선호하고 정서적으로 불편감에 대한 지각을 억제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당연하다(Matthews, 1988). 더욱이, 최근 연구에서는 A유형 행동 패턴이 부적응과 연합되는 심리적 중후와 연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Suls & Wan, 1989). Endler와 Parker(1990)는 A유형 행동 패턴의 증가는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과 연합됨을 보여 주었다. 대조적으로 다른 연구들은 A유형 행동 패턴들이 보다 적응적이고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과 긍정적으로 연합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2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여러 성격특성들을 하나의 대처척도 상에서 동시에 비교해봄으로서 다양한 성격특성과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A유형 행동과 대처방식과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자 한다.

대처연구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처방식의 안정성에 관한 의문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환경이나 스트레스 문제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상이한 대처전략이 요구되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대처전략도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안정된 성향으로 대처방식을 다루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다. Folkman 등 (1986)은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황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되면 문제 중심적인 대처가 더 많이 사용되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되면 정서 중심적인 대처가 더 많이 사용됨을 발견했다. 김교헌과 전경우(1993)도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질이 만성적이고 통제력이 낮은 경우(예, 건강이나 종교문제)는 부정이나 종교에 의존하기 등의 대처가, 이에 반해 만성적이기는 하지만 통제력이 높은 문제(예, 가치관이나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등의 대처가 보다 빈번하게 사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ausey와 Dubow(1992)는 가설적인 성취문제와 가설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을 비교했다. 그 결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달라지더라도 특정 대처 방략들의 사용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보였다. Stone과 Neale(1984)은 120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실제의 생활문제에 대해 일상적 대처방식을 측정했다. 그 결과 유사한 문제의 유형에서 대처기제의 사용이 안정되어 있었다. Compas등(1988)도 친구와의 다툼이나 불화와 나쁜 성적을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다루었는데, 성질이 다른 두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동일한 대처방식들은 .30에서 .60사이의 상관을 보였다. Billingsley, Waehler와 Hardin(1993)은 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번의 시기에 걸쳐 대처 척도를 실시했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하위 대처 척도에 대한 1달에 걸친 검사-재검사 상관은 유의했다. 유사하게도 7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연구에서도 특정대처기제가 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정도에서 적절한 상관을 보였다(McCrae, 1989). Amirkhan(1990)은 대학생과 지역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처측정을 하여 신뢰도상관을 조사했다. 검사-재검사 간격은 4-8주 정도였고, 평균값은 .81과 .82였다. Holahan과 Moos(1987)은 지역주민과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에 걸쳐 대처를 조사했다. 그결과 상관이 .38-.54정도였다. 유사한 결과들이 Swindle, Cronkite, Moos(1989)의 3년간에 걸친 장기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Rohde, Lewinsohn, Tilson과 Seeley(1990)는 대처측정간의 2년간에 걸친 검사-재검사 상관을 .53을 보고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교현, 전경구(1993)의 연구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성질이 달라지더라도 사용하는 대처전략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48-.77)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처측정들에 대한 검사-재검사 연구들은 그들이 시간적 안정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하여 요인양상을 알아보고 대처가 안정된 기질이라는 측면에서 하위 대처척도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조사하려고 한다.

연구 1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하여 하위 대처 방략들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알아보고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법

피험자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질문지 실시는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시행하였으며 실시기간은 200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1차검사 후 6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도구

대처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처척도는 전경구와 김교현(1994)이 사용한 대처척도와 동일하다. 이 대처척도는 개인적 대처자원, 사회적 대처자원, 종교적 대처자원을 포함하는 모두 15가지 대처방식(적극적 대처, 소극적 철수, 정서표출, 적극적 망각, 고집, 긍정적 해석, 긍정적 비교, 동화, 체념, 정서적 진정, 자제, 자기-비판, 문제해결적 지원추구, 정서적 지원추구, 종교적 추구)를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참여자는 각 문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대처방식에 대하여 그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0), 조금 그렇다(1), 상당히 그렇다(2), 매우 그렇다(3)의 4가지 반응가운데 하나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다차원적 대처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고 요인분석을 했다. 주요인 분석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법

을 사용하여 회전을 하였다. 이밖에도 scree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요인구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고, 그 결과 이론과 합치되면서 고유가가 1이상으로서 독립적인 요인구조로서 나타난 요인이 12개였고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66.5%였다. 이에 따른 요인 양상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그리고 KMO값은 .85였다. 요인분석 결과 드러난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한 communality는 두 문항을 제외하고(16번-.54, 54번-.48)는 .60에서 .89사이로 해당되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한 전경구(1994)등의 연구에서는 1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12개 요인으로서 정서적 진정과 소극적 철수가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정서적 지원추구와 문제해결적 지원추구가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때 요인수를 13개로 지정한 후 다시 한번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한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구조는 전경구와 강혜자 및 류준범(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와 일치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대처방식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대처방식에서 .70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대처방식의 내적 일치도는 다음과 같으며 표 2에 제시되어있다. 사회적 지원추구($\alpha = .92$, 8문항), 종교적 추구($\alpha = .94$, 5문항), 정서표출($\alpha = .90$, 5문항), 고집($\alpha = .85$, 5문항), 긍정적 해석($\alpha = .85$, 4문항), 적극적 망각($\alpha = .80$, 5문항), 긍정적 비교($\alpha = .81$, 5문항), 적극적 대처($\alpha = .82$, 4문항), 체념($\alpha = .83$, 3문항), 자기비판($\alpha = .76$, 4문항), 동화($\alpha = .75$, 4문항), 자제($\alpha = .71$, 2문항).

척도들 사이의 상관분석

각 대처방식간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대로 각 대처방식간에 .30이

상으로 나타난 상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원추구가 정서표출, 적극적 망각, 긍정적 비교, 동화(양보)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긍정적 해석은 적극적 대처와 특히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적극적 망각은 긍정적 비교, 체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 외에 자기비판은 동화(양보)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고집은 적극적 망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들 상관관계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척도들간의 상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념적으로 정반대의 경향을 가지는 척도의 역 상관도 그리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상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2가지 합의 점을 가진다. 하나는 개념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실용적인 것이다. 개념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비교적 광범위한 대처양식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실용적으로는 대처경향성이 경험적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효과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역상관의 경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전경구(1994)등의 연구에서 요인으로 포함된 정서적 진정과 소극적 철수가 본 연구에서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 같다. 정서적 진정과 소극적 철수가 본 연구에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초기 요인분석결과 공통성 값이 낮아 문항에서 제외되었거나 여러 대처척도들에 공통적으로 부하되어 제외된 문항이 이 두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척도들 간의 연합을 더 탐색하기 위해 요인 분석된 12개 요인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에서 1이상의 아이겐 값을 가지는 4가지 요인이 드러났는데 척도들이 개념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련되는 경향이 있었다. 제1주성분에서는 긍정적 해석과 적극적 대처가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동시에 체념, 동화(양보), 자제는 역 상관을 보였다. 제2주성분에서는 지원추구, 종교적 추구, 정서표출, 자기비판이 관련성을 보였고, 동시에 고집, 적극적 망각, 체념, 자제는 역 상관을 보였다. 제3주성분에서는 정서표출이 자기비판이나 동화(양보)와 역 상관을 보였다.

연구에서는 대처 방략들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은 .75의 신뢰도를 보임으로서 비교적 안정된 경향을 보였

표 1. 다차원적 대처척도에서의 요인양상

문	항	요인부하량	문	항	요인부하량
지원추구(정서적, 문제해결적)			적극적 망가		
52. 나는 나를 따뜻하게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81		56. 나는 문제상황을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67	
42. 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79		3. 나는 가능하면 그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58	
62. 나는 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76		41. 나는 문제상황을 가능하면 잊으려고 노력한다.	.69	
55. 나는 문제를 능려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73		27. 나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잊자고 다짐한다.	.67	
33.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얻으려고 한다.	.73		16. 나는 문제상황을 될 수 있는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46	
10.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할 사람을 찾는다.	.67		공정적 비교		
13. 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	.69		58. 나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71	
28. 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64		32. 나는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	.73	
종교적 추구			7.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한다.	.67	
63.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하여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93		19. 나는 나보다 주위사람을 생각한다.	.61	
53.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의미를 얻으려 한다.	.91		47. 나는 나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54	
23. 나는 신앙에 의존한다.	.89		적극적 대처		
38. 나는 종교를 통하여 올바른 판단을 얻고자 노력한다.	.87		12. 나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71	
11. 나는 평소보다 더욱 기도를 한다.	.62		39.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64	
정서표출			24.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해나간다.	.64	
40. 나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86		1.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다.	.65	
2. 나는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86		채념		
25. 나는 화가나면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87		35. 나는 '모든 것이 다 운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79	
14.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78		60. 나는 '이것도 내 팔자러니'하고 받아들인다.	.71	
54. 나는 화가 나면 소리치른다.	.53		49. 나는 문제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다.	.69	
고집			자기비판		
30. 나는 문제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계속 몰두한다.	.80		22. 나는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을 탓한다.	.65	
45. 나는 아무생각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	.74		51. 나는 문제의 핵심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한다.	.71	
57. 나는 문제해결과 관계없이 평소애 하던대로 한다.	.69		37. 나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자책한다.	.67	
17. 나는 문제해결과 관계없이 하던일을 더 열심히 한다.	.66		61. 나는 나 스스로의 잘못을 체찍질한다.	.51	
5. 나는 별 생각없이 하던일만 계속 충실하게 한다.	.62		동화(양보)		
공정적 해석			8. 나는 내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방 입장을 따른다.	.72	
31. 나는 문제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한다	.78		59.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따른다.	.63	
46. 나는 현재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려고 노력한다.	.71		48. 나는 상대방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52	
18. 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70		34. 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45	
6. 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67		자제		
			15. 나는 인체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린다.	.53	
			26. 나는 문제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53	

표 2. 대처척도들의 Cronbach' α 신뢰도와 평균과 표준편차

대처척도	항목수	M	SD	Cronbach' α
문제해결적, 정서적 지원추구	8	12.32	4.78	.92
종교적 추구	5	3.46	3.82	.94
정서표출	5	5.46	3.13	.90
고집	5	4.66	2.83	.85
긍정적 해석	4	6.90	2.48	.85
적극적 망각	5	6.97	2.68	.80
긍정적 비교	5	5.46	2.50	.81
적극적 대처	4	5.94	2.12	.82
체념	3	2.80	1.87	.83
자기비판	4	4.98	1.93	.76
동화(양보)	4	4.30	1.94	.75
자제	2	2.22	1.21	.71

다. 구체적으로 요인들 각각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다음과 같으며 유의수준은 .01이다. 요인1(.67), 요인2(.83), 요인3(.67), 요인4(.48), 요인5(.58), 요인6(.52), 요인7(.62), 요인8(.67), 요인9(.55), 요인10(.50), 요인11(.50), 요인12(.37).

즉, 사람들이 대처 방략들을 사용할 때 비교적 안정된 경향이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요인분석 결과 선행 연구(전경구, 김교현, 1994)에서는 15개 요인이 추출된 것이 본 연구에서는 12개요인이 추출되었다. 문제해결적 지원추구와 정서적 지원추구는 일관되게 독립적 요인구조로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추출되었다. 두 요인의 항목이 의미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피험자들에게는 분명히 구분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 문항을 의미적 구분이 분명하도록 다시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선행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철수가 요인을 구성하는 2개의 부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철수가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요인의 개념적 해석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연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표 3. 대처척도들간의 상관

변 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 지원 추구	.29**	.35**	.15**	.07	.31**	.34**	.13*	.23**	.28**	.33**	.26**
2. 종교적 추구		.13*	.11	.05	.10	.14*	.19**	.06	.26**	.22**	.11*
3. 정서 표출			.13*	-.01	.19**	.18**	.05	.18**	.13*	.03	.20**
4. 고집				.23**	.36**	.20**	.22**	.26**	.14*	.27**	.38**
5. 긍정적 해석					.21**	.22**	.56**	.05	.17**	.14*	.10
6. 적극적 망각						.31**	.17**	.37**	.24**	.26**	.39**
7. 긍정적 비교							.24**	.27**	.23**	.19**	.31**
8. 적극적 대처								-.04	.15**	-.02	.02
9. 체념									.23**	.37**	.39**
10. 자기비판										.36**	.18**
11. 동화(양보)											.32**

* P < .05. ** P < .01.(양측검정)

연구 2

다양한 성격 척도치들이 대처방식과 관련성이 있는지와 이러한 측정치들이 미래의 대처양식들을 예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방법

피험자

연구 1의 집단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 척도를 실시하고 2주 후에 연구1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실시하였다. 이때 질문지 실시는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시행하였으며 실시 기간은 200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척도는 다음과 같다. 신경증, 외향성, 낙천주의, 염세주의, 자존감, A유형 행동 패턴.

낙천주의와 염세주의는 Life Orientation Test(LOT, Marshall, Wortman, Kusulus, Hergiv, & Vicker, 1992)로 측정되었다. LOT는 8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개인이 생활결과에 대해 호의적인 기대를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며 낙천주의를 반영하는 4항목과 비관주의를 반영하는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는 낙천주의는 .74로 나타났고, 염세주의는 .63으로 나타났다.

신경증과 외향성 척도는 NEO personality inventory (Costa & McCrae, 1990)에서의 척도를 번안한 척도(홍상황등, 1998)를 사용한다. 각각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역 채점문항은 각각 21문항, 20문항이다. A형 행동 패턴은 Framingham A유형 행동검사를 번안한 척도(유희정, 199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

항 중에서 5문항은 진위형 반응으로 그리고 5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 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한 척도(이영호, 199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은 역 채점한다. 대처척도는 연구 1에서 사용한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표 4는 성격척도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Cronbach' α 신뢰도를 제시한 것이다. NEO 성격검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신경증과 외향성은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으며, 낙천성과 자존감 척도도 .75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A유형 행동 척도는 .54의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바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번안하여 사용한 LOT 척도의 신뢰도는 선행연구(Marshall 등, 199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성격척도들간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다. 신경증적인 경향성은 염세적 성격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외향성, 낙관성, A유형, 자존감 과는 유의한 역 상관을 보였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좋지 못

표 4. 성격척도에 대한 기술통계치

변인	항목수	M	SD	Cronbach' α
신경증적인 경향	48	70.75	14.66	.88
외향적인 성격	48	80.28	14.40	.85
염세적 성격	4	2.37	1.78	.63
낙천적 성격	4	7.27	2.42	.74
A유형 성격	5	6.06	4.23	.54
자존감	10	18.33	4.15	.75

표 5. 성격척도들간의 상관

	신경증	외향성	염세주의	낙천성	A유형
신경증					
외향성	-.21**				
염세주의	.37**	-.22**			
낙천성	-.38**	.40**	-.26**		
A유형	-.47	.16**	-.17*	.18**	
자존감	-.64**	.45**	-.37**	.60**	.28**

* $p < .05$. ** $p < .01$.(양측검증)

한 일에 대해서는 내적 귀인을 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염세적 성격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미래의 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낙천주의성향과는 역 상관을 보였다. 특히 자존감과는 높은 역 상관을 보이고 있다. 외향성은 염세적 성격과 유의한 역 상관을 보였고, 낙관성, A유형, 자존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활발하고 긍정적인 외향성의 기질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높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이에 상응해서 클 것으로 보인다. 염세주의는 낙관성, A유형, 자존감과 유의한 역 상관을 보였다. 낙관성은 A유형,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자존감과는 .60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

은 A유형 행동패턴이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연합된다는 것이다. 즉, A유형 행동패턴은 외향성, 낙천성,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신경증, 염세적 성격과는 역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A유형 행동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성격척도들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긍정적인 성격특성으로는 외향성, 낙천성, 자존감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성격특성에는 신경증, 염세주의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표 6은 대처척도와 성격척도들간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다. 기대된 바대로 적극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낙천주의, 외향성, 자존감과 긍정적으로 연합한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이 미래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체계적이고 활발한 행동 경향성, 자신감의 특성과 연합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적극적 대처는 신경증적 경향이나 염세주의와 역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A유형 행동패턴과 상관이 없는 것은 A형 행동이 성질이 급하고 적개심이 많다는 개념적인 인상과 일치하며 A형기질의 사람들은 낙천적이면서 자존감이 높은 개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전에 성격척도들간의 상관분석에서는 A유형 행동이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인 성격특성과는 역상관을 보였다. 그런데 대처척도들과의

표 6. 성격척도와 대처척도와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경증	.29**	.06	.39**	-.05	-.35**	.12*	.09	-.31**	.22**	.27**	.12*	.13*
외향성	.17**	.05	.19**	.06	.30**	.01	.12*	.30**	-.04	-.06	-.09	-.07
염세주의	.13*	-.02	.11	.15**	-.09	.10	.00	-.12*	-.11*	.29**	.24**	.12*
낙천주의	.05	.15**	.07	.09	.52**	.09	.22**	.44**	.03	-.01	.04	.10
A유형	-.15**	-.12*	-.16**	.06	.20**	-.02	-.07	.09	-.09	-.18**	-.03	-.08
자존감	-.05	.05	-.08	-.01	.40**	-.12*	.13*	.40**	-.11	-.18**	-.03	-.07

* $p < .05$. ** $p < .01$.(양측검증)

상관에서는 외향성, 낙천성, 자존감의 성격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적극적 대처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의 분석에서 A유형 행동은 정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경향성과 잘 하려는 생각에서 오는 성급하고 불안한 심정을 반영하는 부정적인 경향성 둘 다를 특징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유형 행동과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른 A유형 행동적도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원추구는 신경증, 외향성, 염세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A유형 행동과는 유의한 역상관을 보이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정서적인 지원을 구하려는 경향성은 신경증, 염세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성격특성과 연합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지원적 추구의 경향성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통제하려는 A유형행동과는 반대되는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A유형행동과는 유의한 역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추구는 바람직한 대처 방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추구는 낙천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A유형 행동과는 유의한 역 상관을 보이고 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신앙의 힘을 빌리는 경향성은 일단은 긍정적인 경향과 연합되며 자기 지배적인 A유형 행동과는 상반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정서표출은 신경증, 외향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A유형 행동과는 유의한 역 상관을 보였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정서표출은 외향적인 성격일 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화난 감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은 신경증적인 성격특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집은 전반적으로 성격특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염세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 해석은 외향성, 낙천주의, 자존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A유형 행동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 신경증과는 유의한 역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긍정적 해석은 비교적 바람직한 대처방식으로 보여진다. 적극적 망각은 신경증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자존감과는 유의한 역상 관을

보였다. 문제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인 적극적 망각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 할 것 같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처방식은 아닐 것 같다. 긍정적 비교는 외향성, 낙천성,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경향성인 긍정적 비교는 비교적 긍정적인 특성이기는 하나 긍정적 해석이나 적극적 대처와 비교해서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연합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상의 대처방식은 아닌 것이다. 체념은 신경증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염세주의와는 유의한 역 상관을 보였다. 문제상황을 하나의 운명 또는 팔자소관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문제해결을 피해버리는 체념적 사고는 염세주의와 역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부귀인을 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염세주의적 시각과 상반되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 같다. 자기비판은 신경증, 염세주의와 유의한 역 상관을 보였고, A유형 행동, 자존감과는 유의한 역상 관을 보였다. 문제에 대해 내부귀인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기비판과 염세주의는 같은 부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환경을 통제하려는 경향성인 A유형, 자존감과 역 상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동화(양보)는 신경증, 염세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내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려는 동화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염세주의적 경향성과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염세주의적 사고와 동화와 관련된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제는 신경증, 염세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자제와 염세주의와의 관련성은 앞의 동화와 염세주의와의 관련성과 같은 맥락인 것 같다. 즉, 내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기대, 나에게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제라는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결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경증은 지원추구, 정서표출, 적극적 망각, 체념, 자기비판, 동화, 자제와 긍정적으로 연합하고, 긍정적 해석과 적극적 대처와는 역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신경증은 적용적이지 못한 대처방식과 연합되는 경향

표 7. 성격변인에서 대처를 예언하는 단계적 회귀분석

예언변인	대 처 척 도											
	지원추구		정서표출		고집		긍정적해석		체념		자기비판	
	R ²	β	R ²	β	R ²	β	R ²	β	R ²	β	R ²	β
신경증	.049	.018**	.113	.029**	.036	-.010*	.216	-.012**	.015	.008*	.102	.011
	종교적추구		정서표출		적극적망각		긍정적비교		적극적대처			
낙천주의	R ²	β	R ²	β	R ²	β	R ²	β	R ²	β		
	.016	.062**	.187	.055*	.022	.061**	.036	.069**	.104	.085**		

* $p < .05$. ** $p < .01$. (양측검증)

성을 보였고 적응적인 대처방식과는 역 상관을 보였다. 외향성은 지원추구, 정서표출, 긍정적 해석, 긍정적 비교,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으로 연합되었다. 즉, 외향적인 기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비교적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방식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염세주의는 지원추구, 고집, 자기비판, 동화, 자제와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적극적 대처와 체념과는 역 상관을 보였다. 낙천주의는 종교적 추구, 긍정적 해석, 긍정적 비교,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인 연합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염세주의적 사고보다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낙천주의적 사고가 적응적인 성격기질로 간주될 수 있다. A유형 행동은 긍정적 해석과 긍정적인 연합을 보이고, 지원추구, 종교추구, 정서표출, 자기비판과 역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은 긍정적 비교,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인 연합을 보이고, 적극적망각, 자기비판과 역상관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아 신경증, 염세주의는 적응적이지 못한 성격기질로 드러났으며, 반면에 외향성, 낙천주의, 자존감은 적응적인 성격기질로 드러났다. 종합적으로 성격차원들은 대처의 하위영역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격차원들이 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격특성이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격차원들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각 대처요인들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5에서 살펴보면, 예언변인들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준거변인별로 중다 회귀분석을 할 때마다 예언변인들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준거변인들 각각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모두에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과 8은 성격차원들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대처의 하위 영역들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단계적 (stepwise)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신경증은 지원추구와 정적관련이 있는 강력한 예언변인이며, 외향성은 지원추구와 정적관계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유의한 설명량(4.5%)을 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경증은 정서표출, 고집, 긍정적 해석, 체념, 자기비판을 예언하는 척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경증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서표출, 고집, 체념, 자기 비판등의 대처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외향성은 정서표출과 긍정적 해석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개념적 입장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경증적 이면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지원추구와 정서표출, 긍정적 해석의 대처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낙천주의자들은 종교의 힘을 빌린 다든지 적극적 망각의 대처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염세주의적 사고의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동화(양보)의 대처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표 8. 성격변인에서 대처를 예언하는 단계적 회귀분석

예언변인	대 처 척 도					
	고집		자기비판		동화(양보)	
염세주의	R ²	β	R ²	β	R ²	β
	.018	.104**	.079	.125**	.044	.117**
외향성	지원추구		정서표출		긍정적해석	
	R ²	β	R ²	β	R ²	β
	.093	.015**	.174	.015**	.191	.154**
자존감	긍정적비교		적극적대처			
	R ²	β	R ²	β		
	.018	-.057**	.128	.047**		
A유형	종교적추구					
	R ²	β				
	.030	-.029*				

* p < .05. ** p < .01.(양측검증)

염세주의적 사고를 가지면서 신경증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처방식으로 고집, 자기비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낙천적이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비교와 적극적 대처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적응적인 대처방식은 역시 긍정적인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부정적인 성격특성보다는 긍정적인 성격특성이 바람직한 대처방식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대처방식은 건강과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논의

본 연구 1에서는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하여 하위 대처 방략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대처척도의 요인양상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대처 방략들은 안정된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즉,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처 방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대처 방략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략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며 다음에 같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될 때 같은 대처 방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하여 요인양상을 비교해 본 결과, 고유가가 1이상으로서 독립적인 요인구조로 나타난 요인이 12개(지원추구, 종교적 추구, 정서표출, 고집, 긍정적 해석, 적극적 망각, 긍정적 비교, 적극적 대처, 체념, 자기비판, 동화(양보), 자제)였고,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66.5%였다. 이러한 요인구조는 전경구등(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와 일치하는 것인데, 제외된 정서적 진정문항은 초기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 값이 낮아 문항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척도의 요인구조는 선행연구에서 가정했던 척도의 구성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철수가 요인을 구성하는 2개의 부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철수가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요인의 해석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소극적 철수문항은 여러 대처척도들에 공통적으로 부하되어 제외된 문항이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추후연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척도들이 개념적으로 의미있는 방식으로 관련되는 경향이 있었다. 긍정적 해석은 적극적 대처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정서표출은 고집, 적극적 망각, 체념, 자기비판과 관련성이 높았다. 이는 긍정적인 대처 방략과 부정적인 대처 방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처의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는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75정도를 보여 안정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하위척도별로 보면 .37에서 .83의 사이의 값을 가졌다. 특히 종교적 추구는 .83의 상관을 보임으로서 신앙에 의존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된 대처성향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에 반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제의 경향성은 .37의 낮은 상관을 보임으로서 스트레스의 변화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2에서는 다양한 성격특성들과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성격특성이 미래의 대처방식을 예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성격척도들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긍정적인 성격특성으로는 외향성, 낙천성, 자존감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성격특성에는 신경증, 염세주의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성격특성과 대처방식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신경증은 적응적이지 못한 대처방식과 연합되는 경향성을 보였고, 외향적인 기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비교적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방식과 연합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염세주의적 사고보다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천주의적 사고가 적응적인 성격기질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들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A유형 행동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성격척도들간의 상관분석에서는 A유형 행동이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대처척도들과의 상관에서는 외향성, 낙천성, 자존감의 성격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적극적 대처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가지의 분석에서 A유형 행동은 정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A유형 행동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후에는 스트레스의 성질이 다른 여러 상황들 속에서 A유형 행동과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성격특성이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격차원들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각 대처요인들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중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신경증은 지원추구와 정적관련이 있는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드러났으며, 정서표출, 고집, 긍정적 해석, 체념, 자기비판을 예언하는 척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향성은 정서표출과 긍정적 해석을 예언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염세주의적 사고는 동화률, 낙천주의는 종교의 힘을 빌린다는 지 적극적 망각의 대처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적응적인 대처방식은 역시 긍정적인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부정적인 성격특성보다는 긍정적인 성격특성에 바람직한 대처방식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대처방식은 건강과 복지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2에서 얻어진 연합의 패턴은 다차원적 대처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에 대한 유용한 증거를 제공한다. 기대된 바대로 적극적 대처는 몇몇의 개념적으로 관련된 성격 척도들과 상관을 보인다. 이러한 수렴적 연합 패턴은 기능적인 것으로 알려진 대처방식은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격자질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덜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처방식은 바람직한 성격자질과 부적으로 연합한다. 자료들은 또한 변별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성격변인들이 이론적 기대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대처 방략과 상관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관이 그리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성격변인과 대처 스타일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격변인이 어느 정도는 대처스타일을 예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문제는 대처 방략에서의 개인차를 얼마나 잘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지적했다시피 일부 이론가들은 대처스타일에서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성격차이와 연관된다고 가정해왔다. 여기서 채택된 접근은 사람들이 특정 대처 방략을 비교적 안정된 선호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가정한다. 안정된 선호는 성격에서 기인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근거로 발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처에서의 성격기질의 잠정적인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준거변인으로 적응간의 관련성 측면에서 신체병리와 정신병리를 포함시킴으로서 대처기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여기서 사용한 다차원적 대처척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처의 모든 면을 모두 반영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확실히 아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많은 상이한 방식을 이 척도에서 다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차원적 척도를 사용하여 많은 상이한 기능들을 측정 하려고는 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지는 못한 것이다. 예를들어, 정보의 추구(Miller, 1987),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같은 측면들도 유용한 대처 방략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대처측정에서의 다양성은 대처과정의 성질을 통찰하는데서 생

기는 한계와 논리적 근거 내에서 유지해야하는 척도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어느 대처기능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는나 하는 것은 그들의 측정과 검증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을 잘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자의 몫일 것 같다.

둘째, 대처연구에서는 대처스타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질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개인의 일반화된 대처스타일의 자기-기술이 구체적 대처행동을 정확하게 기술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 즉, 반응한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인은 그들 자신의 수행을 과대 평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적응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략만을 기술할 수도 있다. 모든 문제들이 논리적 분석대로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보통 대처한다고 생각하는 방법들과 스트레스하의 실제의 행동과는 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성격과 대처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있지만 일부 성격변인들(신경증, 낙천주의, 통제부위)만 경험적 관심을 끌고 반면에 다른 것은 거의 언급도 하지 않는 불균형이 있다. 성격과 대처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다. 그밖에도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Endler & Parker, 1990) 대처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정신병적 경향(Eysenck & Eysenck, 1985)과 같은 주요한 성격측면들도 있다. 이런 병리적 성격수준과 스트레스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질과 대처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Bolger, 1990).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외향성이나 염세주의, 낙천주의, A유형 행동 패턴, 자존감들의 성격변인들을 포함 시켰으나, 더 많은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이상적으로 연구자는 수많은 성격측정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개념체계를 반영하는 측정을 포함하여 대처 경향성을 예언하는데 성격기질의 상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개략적인 성격구조를 조사하는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한 미래의 연구가 대처와 적응과정에

서의 성격요인의 상대적 역할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의 논의로 보아 성격과 대처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특히 성격과 대처에 관련된 기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남아있다. 성격기질과 대처과정간의 관련성은 아마도 현존하는 연구논문들의 상이한 주장 때문에 과소 평가될 수도 있다. 보다 많은 성격기질과 대처과정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대처에서의 성격기질의 역할과 대처자세의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교현, 전경구 (199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경험 분석. 장동환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436-458.
- 김교현, 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 (2) 197-217.
- 유희정 (1990). 관상동맥성 심장병 환자의 심리적 특성-정신병적 경향성과 반응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경구, 강혜자, 류준범 (2000). 울음과 건강간의 관계: 남녀 비교를 중심으로 건강심리학회 동계학술 발표대회 및 workshop자료집.
- 전경구, 김교현, 조신용, 노명래, 손정락 (1994).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 (1), 114-135.
- 전경구, 김교현 (1994). 스트레스와 대처의 다차원적 관계분석(I): 대학생집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 (1), 136-158.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8-271.
- Aldwin, C. M. (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 intergrative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nporath, Y., & Waller, N. G. (1992). : "Normal" personality inventories in clinical assessment: General requirements and the potential for using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 14-19.
- Billingsley, K. D., Waehler, C. A., & Hardin, S. I. (1993). Stability of optimism and choice of coping strateg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6, 91-97.
- Bolger, N. (1990). Coping as a personality proces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25-537.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y: A Theoretical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 267-283.
- Carver, C. S., & Scheier, M. F. (1994). Situational coping and coping dispositions in a stressful trans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84-195.
- Causa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7-59.
- Carver, C. S., Pozo, C., Harris, S. D., Norriega, V., Scheier, M. F., Robinson, D. S., Ketcham, A. S., Moffat, F. L., & Clark, K. C. (1993). How coping mediates the effect of optimism on distress: A study of women with early stage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75-390.
- Compas, B. E., Forsythe, C. J., & Wagner, B. M. (1988). Consistency and variability in causal attributions and coping with 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305-320.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0). Personality: Another "hidden factor" in stress research. *Psychological Inquiry*, 1, 22-24.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Epstein, S., & Meier, P. (1989). Constructive Thinking: A broad coping variable with specific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32-350.
- Eysenck, H. J., & Eysenck, M. W.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New York: Plenum.
- Fleishman, J. A. (198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ping patter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 229-244.
- Folkman, S., Lazarus, R.S., Gruen, R., & Delongis, A.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71-579.
- Fondacaro, M. R., & Moos, R. H. (1987). Social support and coping: A longitudi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 653-673.
- Friedman, M., & Rosenman, R. H. (1959). Association of specific overt behavior pattern with blood and cardiovascular finding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9, 1286-1296.
- Glass, D. C. (1977). *Behavior patterns, stress, and coronary disease*. NJ: Erlbaum.
- Holahan, C. J., & Moos, R. H.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46-95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cCrae, R. R. (1989). Age differences and chang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4, 161-169.
- McCrae, R. R. (1991).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ssessment in clinical set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399-414.
- McCrae, R. R., & Costa, P. T.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 385-405.
- Marshall, G. N., Wartman, C. B., Kusulas, J. W., Herrig, L. K., & Uickers, R. R. (1992).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 1067-1074.
- Matthews, K. A. (1988). Coronary Heart Disease and Type A Behavior: Update on and alternative to the Booth-Kewley and Friedman(1987)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4, 373-380.
- Miller, S. M. (1987). Monitoring and blunting: Validation of questionnaire to assess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42-148.
- Parkes, K. R. (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nmental factor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77-1292.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ittner, M. S., Houston, B. K., & Spiridigliozzi, G. (1983). Control over stress, Type A Behavior Pattern,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27-637.
- Rohde, P., Lewinsohn, P. M., Tilson, M., & Seeley, J. R. (1990). Dimensionality of coping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99-51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Irving, L., Sigmon, S., Yoshinobu, L., Gobb, J., La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tone, A. A. & Neale, J. M. (1984). New measure of daily coping: Develop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92-906.
- Suls, J., & Wan, C. K. (1989). Effects of sensory and procedural information on coping with stressful medical procedures and pain: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372-379.
- Swindle, R., Cronkite, R., & Moos, R. (1989). Life stressors, social resources, coping, and the 4-year course of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468-477.
- Terry, D. G. (1994). Determinants of coping: The role of stable and situation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 895-910.
- Wheaton, B. (1983). Stress,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sychiatric symptoms: An investigation of interactive model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 208-229.
- Zeidner, M., & Ben-Zur, H. (1993). Coping with a national crisis: The Israeli experience with the threat of missile attack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209-224.

원고접수일 : 2001. 3. 14.

수정원고접수일 : 2001. 5. 14.

게재결정일 : 2001. 5. 28.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coping on 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Jeon-Ah Lee Young-Hwa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stability in coping behaviors in individuals across time. Especially, the present study examin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hich could predict coping styles in the future. In study, the participants were 317 college students. The scale used in this study were multidimensional scales of stress and coping.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1) Coping styles yielded high stability coefficients across time. (2) Item selection was made from 64 items into 54 items for 12 coping styles(active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ctive forgetting, positive interpretation, positive comparison, self-criticism, perseverance, accomodation, fatalism, social support seeking, religious seeking). (3) Personality factors were important in predictings coping response in the future. Also, the data suggested that the personality qualities that are widely regarded as beneficial were predicted coping strategies postulated to be functional.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for study were suggested.

Keywords : stability, personality factor, coping style, multidimensional coping scale